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휴먼네트워크
1 베스티안재단

1 베스티안 재단
사회복지사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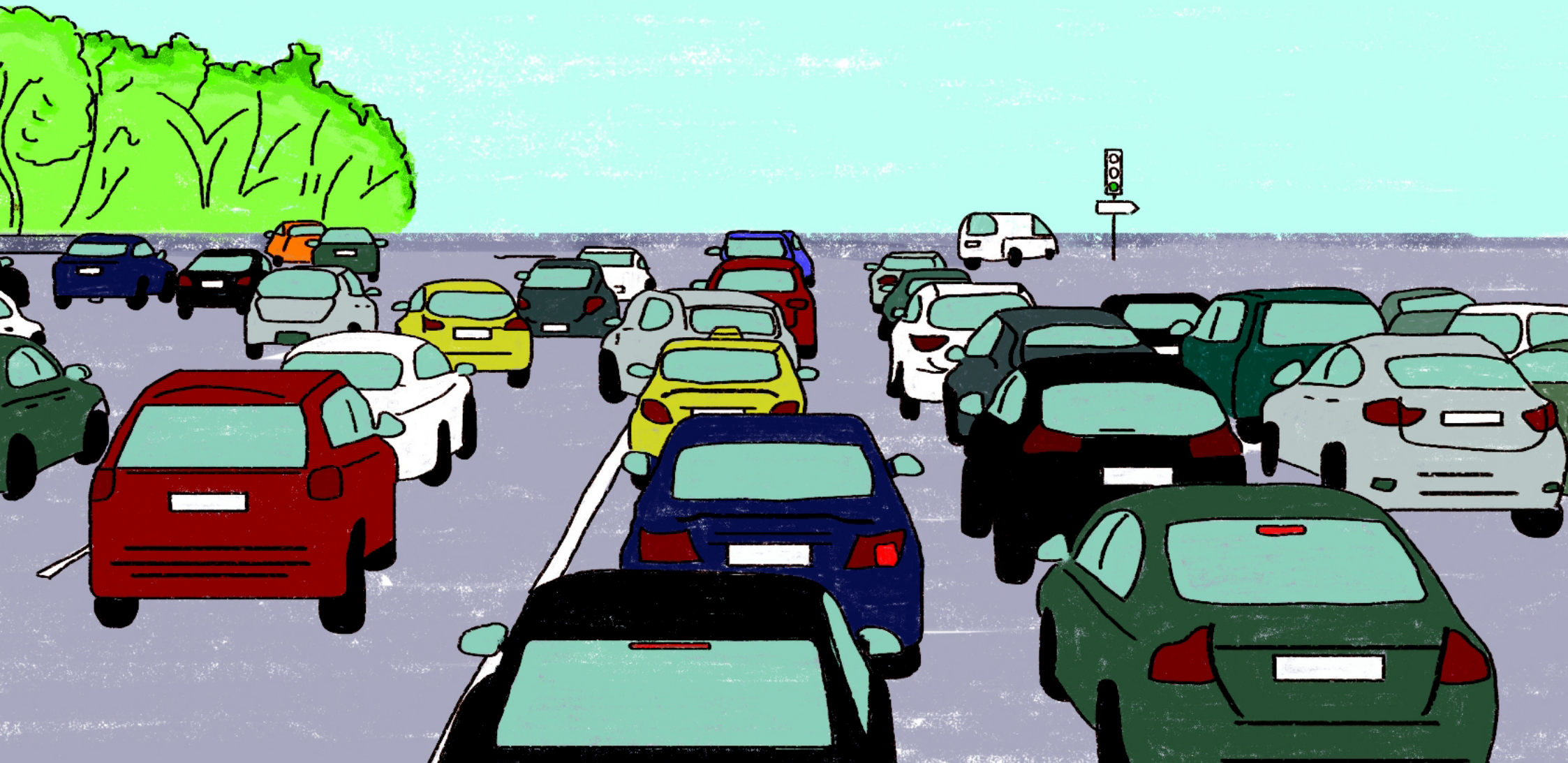
윤진이의 꿈

지은이 김민경 그린이 한소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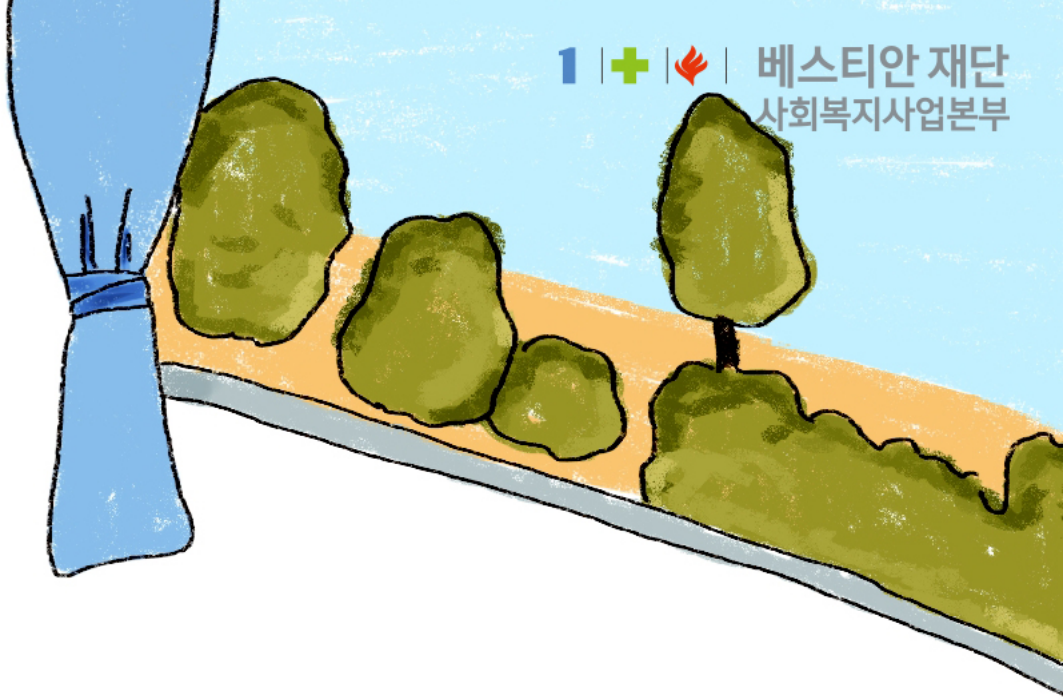
윤진이가 태어나 10개월 때였어요.
하필이면 엄마인 제가 없을 때
아가 윤진이는 화상을 입었어요.

사고가 있던 날,
윤진이 아빠는 윤진이를 태우고 응급실로 갔어요.
그리고 처음 간 병원에서는 간단한 처치 후에
아이가 어리고 여자아이니까
화상전문병원으로 다시 가라고 했어요.

윤진이 아빠는 아이를 태우고 다시 강남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금요일이라 길거리는 많은 차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전 빨리 아이의 곁으로 갈 수 없어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화상병원에서 아이의 손에 감겨있는 붕대를 봤어요.
속상하고 지켜주지 못 해서 미안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화가 났어요.
세상이 원망스럽고 힘들었어요.



윤진이는 34일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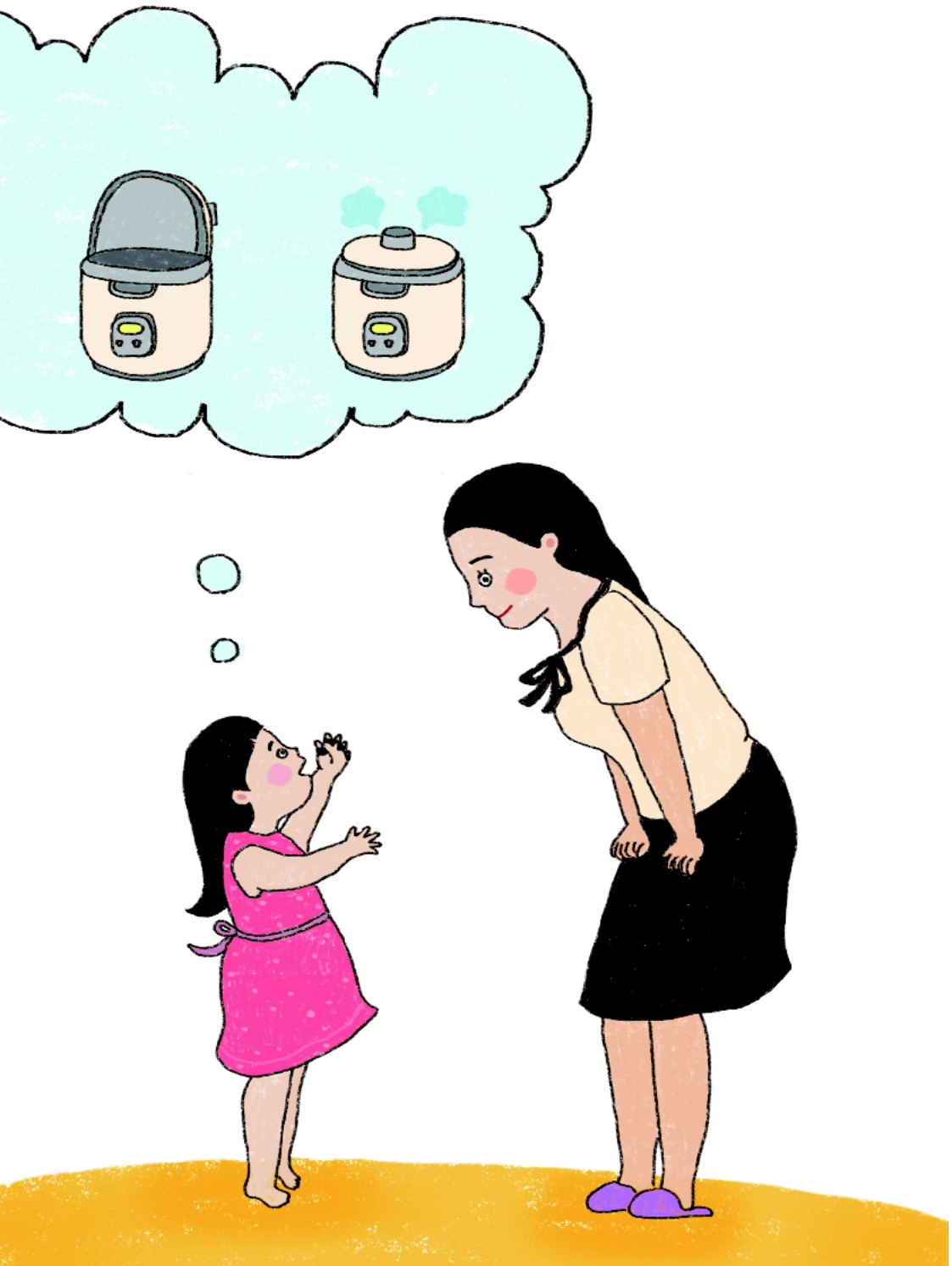
심하게 데인 상처는 조금씩 조금씩 좋아졌어요.

저의 생각도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어요.

윤진이가 얼굴은 안 다쳐서 다행이고,

윤진이가 손을 움직일 수 있어서 다행이고,

윤진이가 힘든 치료를 잘 이겨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윤진이는 6살이 되었어요.
윤진이는 궁금한 게 아주 많아요.
아가 때 데인 손을 들여다보며 같은 질문을 자꾸만 물어봐요.

"엄마, 내가 밥솥을 열다가 데인 거야?"

"엄마, 밥솥에서 이렇게 김이 나올 때 내가 만진 거야?"

저도 같은 대답을 해요.

"윤진이가 다칠 때 엄마가 옆에 없어서
밥솥을 열다가 다친 건지
밥솥에 김이 나오니까 손으로 만진 건지는 잘 모르겠어
엄마가 옆에 없어서 미안해~"

"그럼 이건 크면 없어져?"

"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점점 흐려질거야!
손에 흉터가 있어서 슬퍼?"

"아니, 그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손 더럽다고 손 씻으라고 해서..."

"우리 윤진이가 속상했구나...
데어서 상처가 있는 건데...손을 씻으라고 해서"

"응~ 손 깨끗하게 씻었는데 자꾸만 씻으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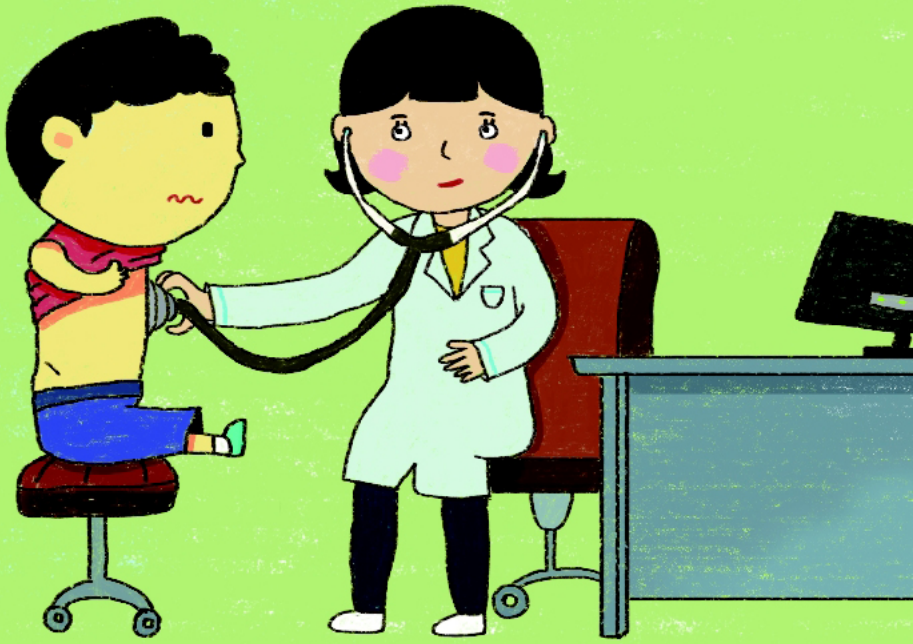
윤진이에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손의 화상흉터는 너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전 윤진이에게 '윤진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너에게는 커다란 가능성이 있어...'
라고 말해줘요. 그래서일까요???
윤진이는 커서 하고 싶은 일이 아주 아주 많아요.

병원에 다녀와서는
“엄마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야!!!
그럼 아픈 사람 약도 발라주고 도와줄 수 있잖아”

“아픈 사람 도와주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

“왜?”

“그래야 어떤 병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하는지
알아야지 고쳐주고 도와줄 수 있잖아”



주먹밥을 만들고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또 다른 꿈을 이야기해요.
“엄마, 나는 커서 요리사가 될거야!”

“엄마는 다른사람이 만들어 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더라”

“내가 많이 만들어줄게”

틱톡틱톡

발레 워킹으로 걸어다니며

점프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열심히 해요.

어느 날은 발레 공연을 보고 발레리나가 되요.

“엄마, 나는 커서 발레 공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꾸준히 노력하면 몸매도 이뻐지고 멋진 발레리나가 되겠다”

동물을 좋아하는 윤진이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해요.

“윤진아 강아지, 고양이 말고 어떤 동물을 키우고 싶어?”

“난 새도 키우고 싶고 얼룩말도 키우고 싶어”

“얼룩말을 집에서 키운다고???”

“아니~~ 동물원에서 키우고 돌봐 줄거야”

“그럼 동물을 돌봐주는 사육사가 되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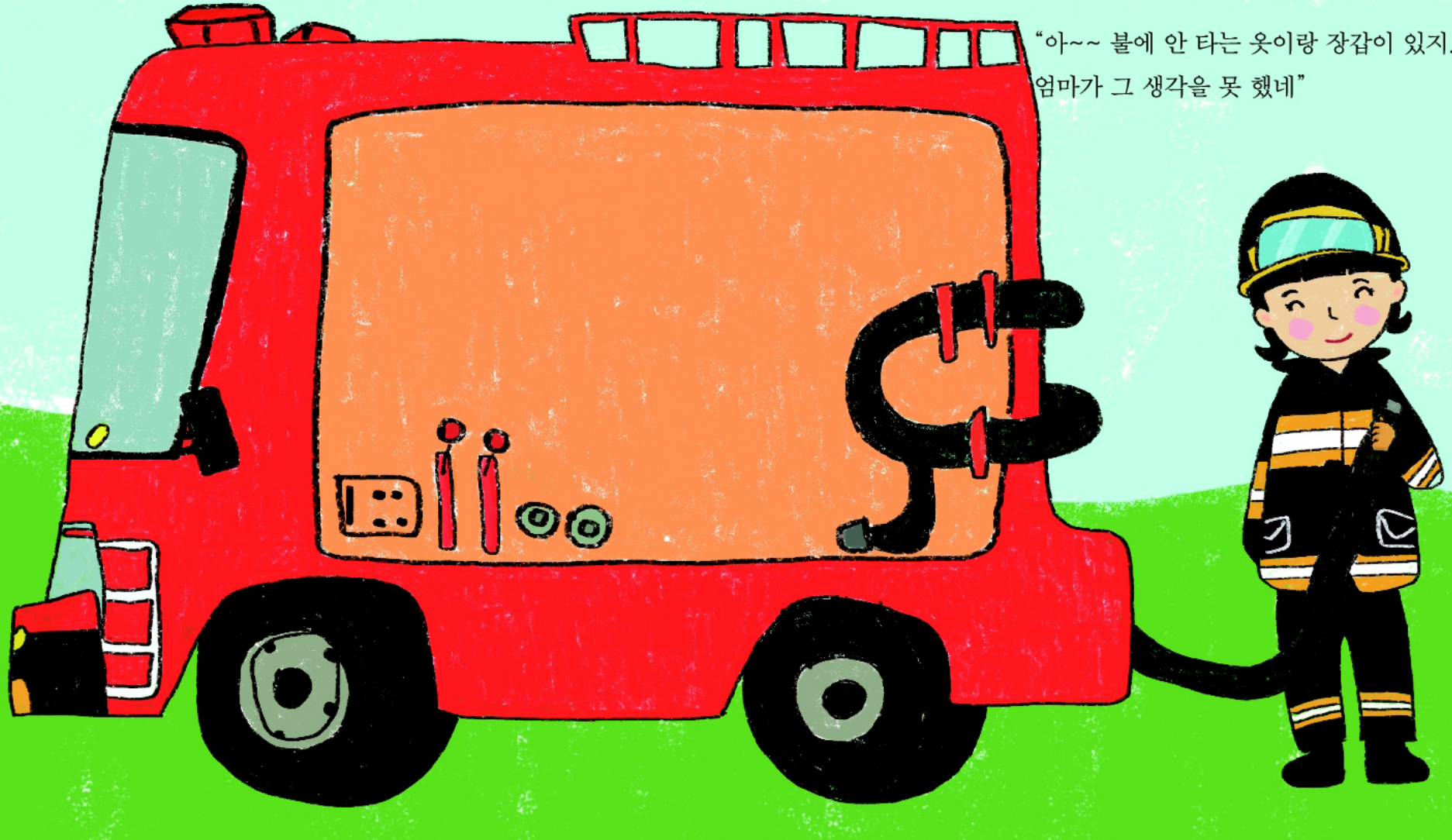
“응! 엄마, 나는 커서 사육사가 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윤진이는 가슴이 덜컥 한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나는 커서 소방관이 될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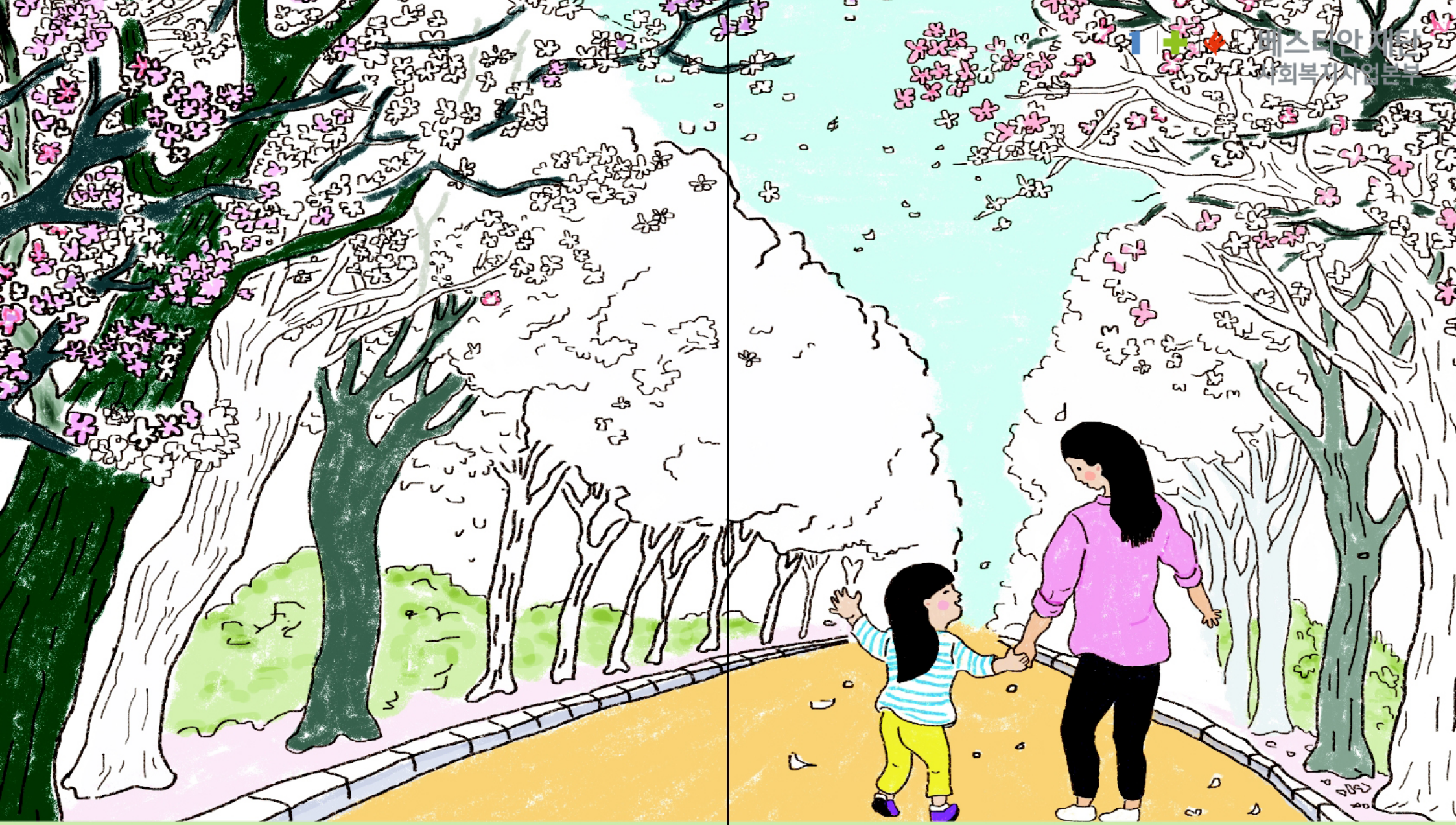
“뭐라고?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너무 뜨겁고 위험한데...”

“엄마 소방관은 불에 안타는 옷이 있잖아~~ 안 뜨거워!”

“아~~ 불에 안 타는 옷이랑 장갑이 있지...
엄마가 그 생각을 못 했네”



베스티안 재단
사회복지사업본부



윤진이는 미래에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하필이면 윤진이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말만 듣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기억과 딸의 기억은 다른가 봅니다.

저는 딸의 꿈을 지켜봅니다.
그저 지켜봅니다.
무엇이 되든 딸의 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처음 화상환자를 위한 동화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으로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과거를 되새기는 시간들이 힘들었지만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스스로에게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동화책을 받아보니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던 저에게 방향을 제시해주신
김미경 작가님과 동화에 생명력을 넣어주신
한소정 그림작가님 동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독촉해주신 손은령 사회복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2016년 11월
지은이 김민경

처음 접해 본 경험이라 많이 서툴고 힘들었지만
그럴때마다 김민경 작가님께서 보내주신
귀여운 윤진이 애기때 사진을 보며 힘내서
작업했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추억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6년 11월
그린이 한소정

1 | ✚ | | 베스티안 재단
사회복지사업본부

윤진이의 꿈
ⓒ 김민경, 2016

지은이 김민경
그린이 한소정
편　집 한소정, 박미리
펴낸곳 베스티안재단(http://ibestian.org/)
자　문 김미자(글), 박현욱(그림)

·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은이와 베스티안재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